

내년도 예산확보 활동 '온 힘'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최훈식 장수군수, 국회 방문 동서화합·국토균형발전 위한 사업 지원 요청

장수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10일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해철 의원, 정운천 의원, 진성준 의원, 한병도 의원, 조의섭 국회의원사무장 등을 만나 군이 국회 단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10일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해철 의원, 정운천 의원, 진성준 의원, 한병도 의원, 조의섭 국회의원사무장 등을 만나 군이 국회 단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최훈식 군수는 "2023년 국가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날까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주관을 구성하고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과 및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전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장수=전문선 기자

무주군, 치매사업 관련 혁신 우수기관 선정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선정기관 대상 시상식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무주군 무주군치매안심센터가 정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선정한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가족과 어르신을 위해 추진하는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가 서면심사, 대국민 선후조사, 전문가 현장 검증을 통해 주민건강·안전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는 치매진단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족을 대신하여 전문 인력과 함께 병원검진, 약품 구매, 귀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다. 병원까지의 교통수단 확보가 어렵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 무주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치매조기검진 동행서비스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시해 지금까지 192명이 동행 검진을 받아 152명을 신규 치매환자로 발굴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치매 걱정 없는 무주군을 만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무주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추진

진안군이 이상기후에 따른 대형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대형화하는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나무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나무를 없애는 솜이베기를 비롯해 가지치기, 산물 수집, 낙엽 긁기 등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를 핵심, 일반구역으로 나뉘

기존 숲가꾸기보다 강한 밀도조절을 통해 산물 위험요소를 제거해 대형산불과 생활권 피해확산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안군은 울 상반기 조림지포베기, 어린나무, 큰나무, 공익림가꾸기 등 1,997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40ha를 추진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주지역 농업인들이 지난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면서 흥겹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유호연 부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군 의원,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한국농기계경영인무주군연합회 등 8개 농업인단체, 그리고 농업인 등 950여명이 참여했다.

(사)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국농기계경영인무주군연합회 김성곤 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우수농업인들에 대한 표창, 우수 농산물 품평 시상, 감사패 수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앞서 식전공연과 가수단



입장식,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래떡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했다. 또 오후에는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퀴즈 대회 및 사과 꺾기 경진대회가 참가자들의 많은 흥미와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외에도 중·고교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학교 4-H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미래 인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2AM커뮤니케이션 최윤희 대표가 강사로 초빙된 가운데 '농업인이 행복한 소용돌이'에 대한 특강이 실시돼 소용돌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박순서)가 주관하는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렸다.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쌀값 하락 등 암울한 농업현실 및 이태원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간소하게 치러졌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농업 발전에 힘쓴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농업 발전에 힘쓴 품목별 우수회원 8명에게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도지사 표창 3명, 농업인단체 육성에 공로가 많은 공직자 2명이 감사패 및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기술 부분 시범사업 성과와 주요작물 신품종 특성 등을 접시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지난 11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4회 장수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정영성)가 주최하고, 장수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류기행)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와 장정복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농업인들을 축하해줬다.

휴토(土)자가 두 번 겹치는 날이라 해 11월 11일에 기념하는 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올해 27회째 맞이했으며, 장수군은 2009년 처음 기념행사를 갖기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1부 기념식 행사에서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장수군 농업인 대상에는 과수 부문 백형준(67, 장수읍), 축산·임업 부문에 정진경(49, 계북면), 체소·특작·화훼 부문에 윤여권(63, 천천면), 식량작물 부문에 양만용(59, 장계면), 수출·가공 부문에 박순도(76, 계남면)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장수군 농업정책과 신은영 농업정책팀원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다. 연이어 이뤄진 2부 행사에서는 초대기수의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뤄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가족과 함께하는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열려

청정지역 진안고원에서 재배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진안의 김장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4회 가족과 함께하는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안고원시장 광장에서 개최됐다.

4회째를 맞은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는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로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YMCA가 주관했다.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는 큰 일교차와 좋은 토질에서 자란 맛과 식감이 좋고 속이 꽉찬 배추와 진안에서 자란 좋은 품질의 고추와 각종 채소로 만들어진 양념으로 감동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해가 갈수록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부문 대상 수상

진안군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전국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전남서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전국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은 성별·나이·장애 유무나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정한 상이다.

올해 6~7월 공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제약 없는 공유, 안정적인 균형, 존중받는 다양성, 혁신적인 변화, 안전한 공간 등 5대 가치에 부합하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UD '환경조성' 분야 공공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고풍자·장애인·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보편적인 삶을 살게 하고 노동의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가장 보편적인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본질에 충실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축! 전주매일 창간 fb

비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